순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총력'

시·전문가, 시민 포럼서 당위성 등 '한목소리'
에너지 공급·소비 분산 필수…"국가산단 지정"

순천시가 최근 문화건강센터에서 '탄소중립·균형성장을 위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과 기업 유치 시민 포럼'을 열고 전남 동부권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에는 시민, 전문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전문가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점검하고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권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필요성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현재 수도권의 전력 소비는 우리나라 전체의 45%에 달한다"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력 공급망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에너지 공급과 소비의 분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하승수 변호사,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연합 사무국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박사, 이순형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용인 반도체 송전선 구축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이 겪는 차별과 문제점을 다뤘으며, 김미선 사무국장은 최근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 계획과 관련해 반대 집회 확산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며 진정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지산지소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광훈 박사는 현재 수도권이 갖는 전력 문제를 언급하며 2003년에 정전 사태를 겪은 스웨덴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순형 교수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 용수, 항만물류 입지 등 모든 것을 갖춘 곳이 순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확대하고, 동부권 산업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특별시와 협력해 국가산단 지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

'RE100 반도체 국가산단과 기업 유치 시민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순천시

보성, '식품제조형 공유주방' 운영…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활성화

31일까지 사용자 모집
가공품 생산 환경 제공

보성군은 오는 31일까지 농업인의 가공 창업 참여 확대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식품제조형 공유주방' 사용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신청 당시 보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며, 선발된 후 1개월 이내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선정은 서면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성·기술력·수행 능력·적합성·전문성 등 항목별 평가(총 100점)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자를 선발한다. 청년농업인(18~49세 이하)은 가점 5점이 부여된다.

보성군은 오는 31일까지 농업인의 가공 창업 참여 확대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식품제조형 공유주방' 사용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2025년 농식품제품개발실무교육(하반기) 키위청 실습 모습. 사진제공=보성군

희망자는 신청서·사업계획서(제품 개요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가공 관련 교육 이수증(필수)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 관련 자격증, 수상 실적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은 보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061-850-5722)으로 방문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4월 10일 보성군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로 발표되며, 이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용계약 체결,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영업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보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연면적 477.19㎡ 규모의 제조시설로, 전처리실, 습식·건식가공실, 분쇄착유실, 아이스크림가공실 등 68종 92대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 공유주방운영업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HACCP 인증(아이스밀크)과 품목제조보고(9종)를 보유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가공품 생산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고흥로컬푸드 직매장 오늘 개장

농산물 유통단계 최소화

고흥군은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흥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25일 정식 개장한다.

이번에 개장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최소화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공간으로, 신선도와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직매장에서는 제철 채소와 과일을 비롯해 지역 특산물, 가공식품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일 예정이며, 소규모 농가와 청년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중무휴 운영을 통해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장 당일에는 오전 9시부터 '고흥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운영되며, 오후 2시에는 개장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로 연결되는 상생의 공간이다"며 "로컬푸드 직매장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곡성, 스마트농업 기반 블루베리 인력 육성

명품농업대학 46명 입학

곡성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청마당에서 교육생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기 곡성명품농업대학 블루베리 스마트팜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군은 지난 2월 23일부터 교육생을 모집해 총 46명이 입학했으며, 블루베리 스마트팜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블루베리 스마트팜 과정은 스마트팜농업 기술을 접목한 블루베리 재배기술과 농장 운영 역량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며, 청년농업인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대의 농업인이 참여해 블루베리 스마트농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로 제16기를 맞는 곡성명품농업대학은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생 46명을 대상으로 21회에 걸친 이론교육과 3차례에 걸친 전남과학대학교 실습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 현장 교육이 함께 진행되며, 총 92시간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블루베리 스마트팜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교육생 모두가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블루베리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고, 곡성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재가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번 기자 hnnews1@

여수 돌산 홍갓·거문도 해풍쑥·섬 방풍
국제슬로푸드 '맛의 방주' 등재

여수 지역 대표 농산물인 돌산 홍갓, 거문도 해풍쑥, 섬 방풍이 국제슬로푸드협회의 세계 식문화유산 보호 프로젝트인 '맛의 방주(Ark of Taste)'에 등재됐다.

'맛의 방주'는 전 세계 소멸 위기에 처한 전통 식재료와 음식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며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식재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재된다.

이번에 등재된 3개 품목은 여수의 자연환경과 전통 속에서 계승돼 온 지역 특산물로 보존 가치와 역사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여수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역 식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등재를 추진해 왔으며, 약 8개월 만에 성과를 거뒀다.

돌산 홍갓

거문도 해풍쑥

섬 방풍

특히 여수시의회도 '여수시 맛의 방주 발굴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책적·제도적 지원에 힘을 보태며 등재에 의미를 더했다.

이번 등재를 통해 전통 식재료의 보존 기반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이를 활용한 지역 특화 상품 개발과 식문화 콘텐츠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데이터로 개화 맞추고 콘텐츠로 체류시간 늘렸다"

광양매화축제, 문화·먹거리·체험 풍성
71만명 방문… 지역 경제 활성화 완성

제25회 광양매화축제가 방문객 71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4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2024년 유료화 이후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았으며, 주말에는 하루 13만명이 몰려 최대 인파를 기록했다.

개화 절정과 맞물린 축제는 문화·예술·먹거리·체험 프로그램과 안정적인 운영이 어우러지며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시는 기상청 기온 자료와 농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화 만개에 필요한 적산온도를 산출해 축제 개최 시기를 조정했다. 기후변화로 개화 시기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실제 만개 시점과 축제 일정이 맞물리며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축제 콘텐츠도 한층 다양해졌다. 축제장은 문화·체험·미식·관광이 결합된 복합 플랫폼으로 확장됐다. '엄재권 화백'의 민화 특별전과 미디어아트전은 매화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전시 콘텐츠를 선보였고, 문화축제로의 외연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야외 매화 독서 프로그램 '비밀의 정원'도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제25회 광양매화축제가 방문객 71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제공=광양시

광양매화문화관 일대에서는 주무대를 중심으로 광양시립예술단 공연과 버스킹, 12개 읍면동이 참여한 '우리동네 콘서트' 경연이 열렸고, '봄날 러브레터', '인생네컷', '보이는 스튜디오' 등 참여형 콘텐츠도 함께 운영됐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이 일대가 축제 중심 공간으로 확대됐다.

먹거리 분야에서도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가 호응을 얻었다. '김국 한 상', '광양불고기김밥', '광양매실한우버거', '매실담아도시락', '광양토종닭꼬치', '섬진강 매화마실 카페존' 등 축제 한정 K-푸드가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직거래장터와 향토 음식점, 지역 카페 참여도 확대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에 도움이 됐다.

관광 연계 프로그램은 체류형 관광 전환에 힘을 보탰다. '한국관광 100선 탐방 이벤트', '광양매화 스탬프 투어', '매화꽃 활터, 매화사풍', '섬진강 뱃길 체험', 'Fun Run(매화길 가벼운 걸음)' 등 참여형 콘텐츠가 운영돼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체험의 기회를 넓혔다. '매화랑 2박 3일' 프로그램도 숙박과 관광을 연계하며 체류형 관광 기반을 넓혔다.

입장료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고 관광지 연계 무료입장을 도입한 점도 축제와 지역 관광을 잇는 데 역할을 했다. 특히 지역상품권 사용처를 공식 축제장과 다압 소재 상점, 광양수산물유통센터, 중마시장 일부 점포로 제한해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지도록 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는 과학적 개화 예측과 차별화된 콘텐츠, 방문객 중심 운영, 지역 상생 구조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며 대한민국 대표 봄꽃 축제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개화 예측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